

# 물리치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ist Association

##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이 발간되는 협회보에 즈음하여……) 구 연 업

조락의 계절 가을... 서늘한 바람으로 더욱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이 신선한 계절에 맞춰 우리 협회보가 새로운 지면으로 발간되는데 대해 우선 축하를 드려야겠습니다.

임상에 나온지 얼마 되지않는 저로서 매달 나오는 협회보가 상당히 소중하고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흐르고 나니 협회보도 별 신통치 않고 매월 발행인것이 격월 심지어는 3개월씩 건너 뛰곤 했습니다. 내용이라는 것도 정말 협회보라 하기 창피하게 발간되고 그러다 보니 가끔 받아보는 협회보는 제대로 읽혀 지지도 못하고 그냥 어느 구석에 처박하여 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협회가 창설된지도 이제 근 20년이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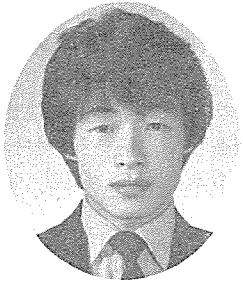
우리 협회의 얼굴이라 할수있는 협회보가 이렇게 보잘것없이 우리 스스로가 대한 다면 누가 우리의 협회보를, 또한 우리 협회를 관심있게 보아 주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새롭게 그리고 성의를 갖고 우리의 얼굴인 협회보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0월 8일 협회 각지부 협회보 책임자 회의를 갖고 앞으로는 좀더 낫은 협회보를 만들기 위해 성의와 열의로 회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 정말 협회보 다운 협회보를 발행키로 결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부 회원의 결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지금까지 협회보가 제대로 발간되지 못했던 점은 여러분들의 무관심 때문에 협회보에 게재될 원고의 부족으로 건너뛰기도 하고 내용이 불충분한 협회보가 된것입니다. 협회보가 희비남부자 명단이나 실려나오는 영수증처럼 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의 얼굴을 우리가 의면하면 누가 봐주겠습니까? 우리 얼굴은 우리가 가깝시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신것, 임상에서 느끼셨던 여러가지 일들, 또는 평소에 취미삼아 써본 시, 소설, 콩트 등등 회원 여러분들의 모든 글들을 보내주십시오. 다른 회원에게도 알리고 싶은것, 또는 협회에 부탁 또는 문의하시고 싶은것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원고는 여러 회원님들께서 속하신 지부로 보내서 그곳의 협회보 책임자(혹은 편집장)가 중앙회 홍보이사님께 송고하게 됩니다. 중앙회 홍보이사님과 편집위원님들께서 선별 편집하시어 협회보에 실게 되고 또 채택된 원고분에 대해서는 응당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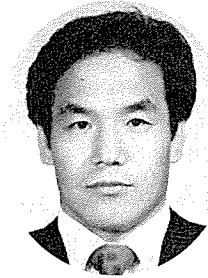
“보수교육 평정에 혜택이 있을 것이며 꼭 소정의 혜택이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며 다시한번 간곡히 협조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뇌성마비아 조기진단 탐색

裴 晟 洙



1971년도 미국보건교육복지국의 보건통계에는 정형외과적 장애아동이 1966년에서 1974년 사이의 아동 1,000명에 대하여 21명이 출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고 같은해 Freidman과 McQueen은 아동인구 1,000명에 대하여 4.40명이 출현한다고 보고하였다. 1973년 Dunn은 지체장애아중 50%이상 뇌성마비아라고 보고하였다. 1980년 김 정근, 허 정은 우리나라 지체장애아 유병율이 7.6%로 보고하였다. 대구 보건학교(지체장애아 교육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1971년 소아마비아대 뇌성마비아의 재학생 비율은 56%대 21%였다가 1983년도 입학생의 경우는 소아마비아는 거의 없고 뇌성마비아는 80%로 역전되어 나타났다. 취학 연령을 7~8세로 보았을때 취학하지 않은 연령집단 아동의 뇌성마비 비율은 더욱 더 높을것을 추정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아직 우리나라의 뇌성마비아 출현율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다만 신생아 1,000명중 2~3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년 500,000~600,000명 신생아가 탄생하면 뇌성마비아는 1,000~1,200명이 된다.

취학한 아동은 경증의 뇌성마비아이고 가정애 남아있는 중증아를 생각하면 우리들이 해야할 일이 중차대함을 느낀다. 뇌성마비아의 원인은 발생론적 입장에서 출산전기 30%(prenatal), 출산시 60%(natal), 출산후기 10%(postnatal)(생후 1개월까지)로 구분하나 대부분 출산전기, 출산시에 발생된다.

뇌성마비란 용어는 만성적이며 뇌질환으로 운동기능 손상을 일으킨 것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환자는 부전마비(paralysis)나 수의운동의 부조화등을 보이거나 불수의 운동이 일어난다. 또 정신지체, 간질, 시·지·청각장애, 이차적 골격기형도 동반하게 된다.

출생기부터 이와같이 어려운 조건을 동반하는 뇌성마비아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가 않겠다. 조기진단은 부모들 스스로 장애아를 가졌음을 빨리 인식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이 더 더욱 중요하다. 게다가 적당한 치료가 강구되면 장애아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고 적어도 자신의 장애를 보상하게 될 것이다.

조기진단의 많은 증상과 징후의 인식에 의하면 그것들은 미미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지만 제일 먼저 어머니는 그것들을 인식한다.

조기진단을 위한 증상과 징후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섭취곤란: 쉽게 반류(regurgitation), 자주토함, 식사에 대한 무관심, 심한 허기짐과 빨리물림(satiation), 적절한 음식물 섭취에도 불구하고 빈비가 있다. 생후 1개월후에도 혀를 내밌, 혀가 입천정에 붙어있다. 숟가락으로 먹기가 불가능하다. 작은 음식덩어리로 숨이 막힘, 입안 음식을 움직일 수 없다. 입속 음식물 씹기보다 빠다. 손가락 빨기가 별로 없다. 설명할 수 없는 소화불량, 설명할 수 없는 복통(colic)이 있다.
- 2) 수면곤란: 정상아가 먹고는 자고 먹고는 자는것 같은 먹고 자는 사이 수면이 곤란, 밤에 계속 잠을 자지못함, 섭취곤란으로 인해 자주 깨어나므로 깊은 잠을 잘 수 없다. 팔 다리 위치변화와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선잠을 잔다.
- 3) 경련: 근육이 비틀리거나 갑자기 움직임, 침착치 못하고 쇄소리를 냄, 화냄, 숨을 멈춤, 분명한 이유없이 선전근의 경련, 갑자기 양팔을 위로 뻗거나 양다리를 신전한다. 눈과 혀의 경련성 운동.
- 4) 분명한 이유없이 체중증가 없다.
- 5) 정신지체, 청각장애, 시각장애, 운동장애로 인해 무기력하고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는 경향이 있다. 시각
- 6) 엄지 손가락등 손가락을 옆으로 벌리기(fan fingers), 손가락 빨기등이 어렵다.
- 7) 목욕통이나 유모차에 태울때나 들어낼 때 경련이 있고, 유모차 또는 침대 가까이 앉아서 큰 동작이나 큰 소리에 파민하다.
- 8) 옷을 입히거나, 목욕 씻길때에 뻣뻣하고 부동이다.
- 9) 생후 4~6주째 양와위에서 눈가까이에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갈 수 없고 웃지 않는다. 6~12주째 머리로 고정하고 눈가까이 달아놓은 물체를 바라본다. 12주쯤에 가서 달린물체를 잡으려고 한다. 5개월쯤에 손바닥을 이용하여 가까이 있는 물체를 잡고 6개월쯤에 두손을 앞으로 가져와 서로 잡는다.

- 10) 5개월쯤에도 기대고 앉아서 머리를 돌릴 수 없고 가까이 있는 물체에 손을 뻗어 잡을 수 없다. 7개월쯤에 기대고 앉거나 혼자 앉아서 한손에 잡은 물건을 다른 손으로 옮길 수 없고 떨어진 것을 좇아올린다.
- 11) 9~12개월 되어도 엄지나 손가락끝으로 작거나 큰 물건을 잡을수 없다. 12~15개월 되어도 잡고 놓는것이 무력하다.
- 12) 혀를 차는 버릇이 있다. 입술 움직임이 불가능하고 3~4개월부터 후두모음을 낸다. 5~8개월부터 입술바람을 분다. 6~8개월부터 옹아리를 시작하고 10~12개월부터 뜻이 없는 말을 하고 8~12개월부터 한 단어씩 한다.
- 13) 12주가 지나도 엄마 목소리에 무관심하다. 목욕물소리, 음악, 음식(우유등)준비하는 소리에 반응한다.
- 14) 4개월때 큰소리로 웃을 수 없으나 5~6개월에 엄마, 아빠목소리를 알고 6개월에 벨, 문소리등 밖에서 나는 계속적인 소리를 인식한다.

이것들 외에도 어머니와 대화, 관찰을 통하여 더 많은것을 더할 수 있을것이다. 이것에 더하여 초기반응(primary reflex)을 이해하는 것은 진단에 필수적이다.

초기반응 여러가지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며 이것은 인체세포에 혈관을 통해 전달되는 영양이 흡수되고 화학적인 반이 유지되며 그래서 생명이 있고 성장하고 유지된다. 심박동, 위장관활동도 머리, 목, 입, 혀, 볼, 구강인두와 깊은 연관을 갖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뇌성마비아는 식사시간을 즐기지 못하므로 성장과 체중증가가 어렵고 변비가 겹친다. 더 발전하여 초기반응을 어렵게 한다. 초기반응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목가누기 반응, 경긴장반사, 미로반사, 허파팽창(lung inflation), 심박동, 허품(yawning), 기침, 빠는반사, rooting reflex 연하반사, 모로반사, 서기반사 등이다.

## 협 회 동 정

이사회 개최: 1983. 10. 20~21

이사회에서는 상훈자와 징계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 상 훈 자 명 단

공로상: 경 기 수 원 광대덕(최우수지부회장)  
 " 양인규(우수회원상)  
 대구 및 경북 배성수(학술대회)  
 " " 박래준(학술대회)  
 서울 북 부 황현숙(협보책임자)  
 전 북 지 부 이소영(직전지부회장)  
 경 기 인 천 서용범(최우수지부 총무상)  
 충 청 지 부 전건식(우수지부 총무상)  
 부산 및 경남 천봉술(우수회원상)  
 감사상: 김 동 혁(새한) 한 명 수(신진)  
 징계대상자: 2년이상 협회비 미납자 전원  
 징계의 종류: 제 명  
 유보사항: 1983. 11. 22까지 징계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자동제명

## 협회보책임자회의

일 시: 1983년10월8일 토요일 PM. 6:00

장 소: 서울 President Hotel coffee shop

참석자: 정 진 우 협회장님

강 정 구 부회장님

함 용 운 감사님

김 정 숙 홍보이사님

곽 대 덕 수원지부부장님

김 호 봉 충청지부편집장

허 완 열 대구경북지부편집장

→ 석 상 령 강원지부편집장

오 승 기 경기인천지부편집장

이 은 일 경기성남지부편집장

방 상 분 경기수원지부편집장

어 경 홍 서울서부지부편집장

박 승 만 서울동부지부 "

최 우 선 서울남부지부 "

황 현 숙 서울북부지부 "

구 연 업 서울중부지부 "

415. 문용주(산.재)

이상 16名

### 결정사항

#### 1. 협회보발간

I) 발행일: 매월 1일

II) 발행면수: 8면

III) 면수구성: 1면 → 논단

2·3면 → 학술

4·5면 → 문예작품외(병원탐방등)

6면 → 중앙회소식

7·8면 → 지부소식 및 광고, 기타

## 베데스타 척추장애자 자활회를 도움시다!

본 협회는 1983. 10. 20~21 양일간에 걸친 이사회에서 베데스타 척추장애자 자활회를 후원하기로 결의하고, 그 첫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자활회에서 발행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회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IV) 원고마감 및 모집: 각지부별로 모집하여 지부편집장이 매월15일 중앙회홍보이사님 앞으로 송고한다.

2. 편집회의의 구성 및 편집위원회

- I) 편집자 연석회의-분기별로 년 4 회 개최
- II) 편집위원회-회합의 편집상 서울 5개지부 편집장으로 구성(I, II항 모두 세부사항은 추후 개별 통보)

3. 기 타

I) 각지부 편집장은 각지부의 행사, 보수교육 및 회원의 원고를 수집, 15일까지 송고한다.

※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관훈동 198-36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II) 신문형식 및 제호

문공부정식등록시까지 유보 → 명년 1월 타이틀 제작 → 동판

III) 원고제출자에 대한 혜택 → 보수교육평점에 혜택 (상세한 사항은 협회보에 홍보)

IV) 제 1 편의 논문은 순회제로 각지부장이 맡도록 한다.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 회 원 동 정

### 특 녀

• 명철제 회원(세브란스병원) 10월22일 특녀

### 결 혼

- 박승만 회원(경희의료원)이 11월27일 오후 1시 서울 예식장에서 결혼 할 예정
- 박지환 회원(한양대학병원)과 오경숙양(현 P·T)이 10월22일 오후 2시 중현교회에서 화촉을 밝혔다.
- 송미숙 회원(한국병원) 10월29일 11시 한국외환은행 본점 강당에서 화촉을 밝혔다.

### 취 업

- 김희경 회원(신구8회) 안양성심병원에 취업
- 정영옥 회원 한국병원에 취업(10월 5일)

### 사 직

- 이길자 회원(적십자병원실장) 개인사정에 의해... (10월10일)
- 심홍섭 회원(세브란스병원) 개인사정에 의해... (9월30일)
- 조영순 회원(수원 이춘택정형외과) 개인사정에 의해...
- 민경태 회원(안양 성심병원) 개인사정에 의해...

## 지 부 소 식

서부지부정기보수교육은 10월15일 세브란스 병원 재활원에서 동병원 재활의학과 박창일교수님을 모시고 spinal cord injury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이날 참석하신 회원은 물리치료사가 36명 작업치료사가 2명이었다.

동부지부정기보수교육은 9월9일 오후 6시30분에 경희의료원 한방물리요법과에서 동부지부 대의원이며 현재 경희의료원 한방요법과에 근무하는 박흥기선생님께서 "레이저의 치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보수교육을 하였다.

보수교육에 이어 한방요법과를 탐방하고 다과회를 가졌다. 또한 4/4분기 정기보수교육은 11월중이나 12월초순에 있을 예정이며, 망년회도 같이 있을 예정이다.

북부지부정기보수교육은 10월21일 이화대학 병원 회의실에서 이재학교수님의 "절단환자의 물리치료에 관한 임상적 연구"란 주제로 북부지부회원 60여명과 서부지부 이경홍총무님께서 참석했으며, 이화대학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다과와 따뜻한 커피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받았다.

중부지부정기보수교육은 9월29일 국립의료원에서 회원 31명이 모인 가운데 최치욱 선생님을 연사로 모셔 "Chest P.T의 실제"에 대해 실습을 위주로 많은 회원의 성원과 관심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Kodak E M G PAPER  
Linagraph direct print paper  
TYPE 1895

물리치료기구 제작 재활기구 오파및수입판매

## 새한販売商社

### 金 東 赫

110 서울特別市 鍾路區 東崇洞 1의31  
醫療器供給會館 401号  
電話 762-5659 · 763-4687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36(신한병원내)

사단  
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TEL. (交) 724-0926, 4707  
(直) 722-0447